지역단신 | 부산·경남

부산 종교인 연합 예술제 개최

부산종교인평화회의(상임대표 정각)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 천도교, 유교, 원불교 등 여섯 종단이 모여 '제5회 평화 예술제'를 개최했다.

11월 28일 부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평화 예술제'는 종교인들이 모여 화합을 노래하는 평화 기원의 자리였다. 평화 예술제는 식전 행사로 국학율려팀의 공연, 1부 개회사 및 내빈 소개, 2부 각 종단의 합창 및 독창 발표로 이어졌다.

금정中 100년역사 화보집 발간

종립학교 부산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는 금정중학교 100년의 역사와 역사관 유물 및 인물 소개가 담긴 100년 화보집 <백년의 숨결 천년의 향기> 출판기념식을 열었다.

11월 27일 금정중학교 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부주지 계전 스님, 부산시 설동근 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통도사 '연꽃밭 가꾸기' 행사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가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 연꽃 밭 1만평을 조성해 '가족사랑 다라이연꽃밭가꾸기' 행사를 진행한다.

연꽃 다라이 5000개, 5000가족을 접수중이며 누구나 동참이 가능하다. 내년 2~3월 연꽃을 심을 예정인 연꽃밭은 가족 휴식공원이 될 예정이다. 세계각지 수련을 재배할 저수지와 차실도 조성한다. 직접 키운 백련을 적멸보궁에 공양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개최

'멈춤 없는 정진, 어린 벗에게 수행의 첫발을 딛게 해 줄 원력'을 주제로 제44차 전국 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12월 15~16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다.

(사)동련 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지현)는 율동, 명상, 요가, 노래, 전래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날 제2회 천진불의 미소 사진공모전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접수 마감은 12월 11일. (051)864-4569

지역단신 | 충청

지원·명효 스님 사단장 감사패

옥천 대림선원 지원 · 명효 스님이 11월 26일 37사단 111연대(연대장 대령 최경식)에서 장병식당 수리 등 지원 공로로 37사단장(소장 김홍배) 감사패를 받았다.

영동 중화사 무향선원 개원

영동 중화사(주지 현구)가 11월 24일 무향선원을 개원했다. 이날 동안거 결제와 함께 10명의 스님들이 수행정진에 들어갔다.

음성 대각사 노인병원 위문

음성 대각사(주지 혜능)는 11월 24일 동안거 결제기도를 봉행하고 떡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충주노인병원을 찾아 위문했다. 대각사 신도회는 준비한 위문품을 150명의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쾌유를 발원했다.

지장전·미륵대불 요사채 점안

괴산 무심사(주지 지근)가 지장전, 용궁전, 미륵대불 요사채 점안 및 낙성대법회를 12월 2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국악인 박경단 축하공연, 2부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초청 대법회, 3부 관등불사로 진행됐다. (043)833-1461

대성사, 교도소 11곳에 책 기증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11월 27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한철호)을 방문해 <수용자 효 편지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2편 200권을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11개 교도소(구치)에 교정 교화용으로 기증했다.

내게 '딱' 맞는 시민선방 어디 있을까?

부산지역 사찰들 다양한 정진·수행 프로그램 마련

부산은 정진의 구도향으로 가득하다. 도심 사찰들이 동안거 결제에 맞추어 선방 및 수행 프로그램, 경전 수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많은 불자들은 수좌스님들과 함께 정진의 구도열정으로 방부를 들였다. 하지만 마땅한 선방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들도 많다. 교통, 직장 근무 시간을 고려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정진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해 부산지역 시민선방을 소개한다.

부산의 대표적인 선방 중 하나인 해운정사(조실 진제, 051-746-2256)에서는 진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스님과 함께 정진하며 점검 받을 수 있어 유익하다. 수행 경험이 깊은 선배들이 많은 것도 장점이다. 상주하는 사람들은 새벽 2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정진한다. 출 퇴근도 가능하다.

부산 홍제사(주지 혜국, 051-802-0130) 황령선원은 현재 9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으로 초심자들을 이끌며 혜국 스님의 소참법문도 이어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진하며 상주는 할 수 없다. 매주 토요일은 철야정진한다.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 051-253-8687)은 선열당(禪悅堂)과 안심당(安心堂) 두 선방을 마련했다. 안심당은 엄격한 분위기의 선열당과는 달리 시간의 자유로움을 두어 처음 참석하는 이도 무리 없이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다. 수행정진 시간은 오전 5시에 시작하여 오후 9시에 방선한다. 오전 5시 새벽기도정진회와 함께 기도 및 참선, 오전 11~12시 주지 하림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오후 7시 30분~9시 염불수행정진회와 함께하는 한글 <금강경> 독송, 그리고 주 1회 참선안심법문 등 수행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올해 4번째 안거를 맞는 미타선원은 현재 50여명이 정진 중이다. 누구나 동참가능하다.

범어사부산포교원 여여선원(주지 정여, 051-853-5486)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진하며 야간 정진도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기본 2시간 이상 참선을 권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동참가능하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11시 정여 스님의 <육조단경>, 목요일<초발심자경문> 경전 공부가 마련된다.

부산 우곡선원(선원장 장명화, 051-853-5486)은 철저한 주경야독으로 직장인들을 위해 안성맞춤이다. 특별한 결제기간 없이 365일 정진한다. 수행시간은 참선 오후 8~10시이며 그 이후는 야단법석의 시간을 열어 수행담 및 경계 점검 시간을 연다.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달마혈맥론>으로 마음공부에 주력하며 낮 시간에도 선방은 개방한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051-508-0345) 선방 무위선원에서는 재가불자 10여명이 용맹정진 중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행한다. 점심 공양은 완전 채식으로 준비해 수행을 돕는 섬세함도 엿보인다.

하성미 기자

동안거 기간 동안 출가수행자 못지 않는 구도열을 불사르는 재가수행자들.

사찰명	전화번호	수행시간
통도사 부산포교원 불지사	(051)816-2241	오전 9시~오후 4시
혜원정사	(051)866-7771~6	오전 9시~오후 4시
금정선원	(051)515-7891	오전 10시~오후 4시
효산선원	(051)816-7741	오전 9시~오후 9시
황대선원	(055)963-9551	오전3시~오후5시, 오전8시~오후10시, 오전2시~오후4시, 오후6시~오후8시
해인사 원당암	(055)932-7308	오전 3시~오후 10시
부산 능인선원	(051)243-8038	오전 10시~오후 3시

'십시일반' 나눔정신 실천

부산 생명나눔 '100원 희망불씨콘서트'

작은 정성으로 생명을 살리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00원 희망불씨콘서트'가 11월 23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생명나눔)에서 개최한 사랑나눔 실천의 장이었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사랑의 저금통은 1100여개가 모였고 모금액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을 앓고 있는 서희진(12)을 위해 사용된다.

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장 원범 스님은 "작은 나무가 모여 큰 숲을 이루듯 작은 정성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두들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헌혈증서 108장을 전달했다. 국제신문 송석구 대표, 해동고 강석표 교장, 해동중 손태석 교장, 금정중 현익채 교장, 최정자씨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2부는 연꽃의 소리, 해동중 비보이팀, 수화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수놓았다.

이날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하여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 생명나눔 부산 본부장 원범 스님, 부본부장 목종 스님, 부본부장 자인 스님 외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종교는 달라도 이웃사랑은 '한마음'

관음사 보덕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종교를 초월해 김장에 사랑을 담았다. 익산 관음사 자원봉사단 보덕회(회장 김인분, 법명 선운지)는 11월 23일 익산 팔봉공설운동장에서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타종교 봉사단과 함께 '종교화합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이번 김장 나누기 행사는 각 종교별 자원봉사단과 이한수 익산시장을 비롯한 익산시 자원봉사종합센터 산하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여했다.

하루 종일 배추를 다듬고 씻고 절이고 양념한 봉사자들은 30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아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200세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관음사 보덕회 김인분 회장은 "각자의 종교는 다르지만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앞으로도 종교 간의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수 익산시장(가운데)과 함께 김치를 버무리는 보덕회 김인분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남미희 총무(왼쪽).

보덕회는 관음사 주지 원성 스님 부임과 함께 창단되어 그동안 독거노인 돌보기, 무료급식등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봉사단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제불교 부흥 재현"

김진수 전주전북포교사단장

"포교사의 수행풍토를 조성하고 포교팀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옛 백제불교의 영화를 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1월 23일 전주전북포교사단 운영위원회에서 제5대 단장으로 선출된 김진수 신임단장(사진)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며 "교구본사와 신행단체, 신도회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계층별 포교활동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재 활동중인 교도소 재소자, 군장병, 청소년 교화사업 외에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과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불교문화 도전 골든벨,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여성을 위한 불교문화 알리기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신임 김 단장은 익산 관음사 신도회장, 합창단장,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군산교도소, 김제해안대대, 여산 부사관학교 등에서 지역 포교활동을 위해 애쓰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행·교육·나눔 실천의 場으로"

부산불교신도회관 개관식 봉행

부산 불자들을 위한 새천년 21세기 녹야원이 문을 열었다. 11월 28일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가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이하 부산신도회관) 개관식을 부산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봉행했다.

연면적 2700㎡, 지상 7층 규모의 부산신도회관 개관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부산시 허남식 시장,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신도회 공병수 회장은 "신도회는 부산불교인재개발원을 통해 인재불사, 수행과 실천의 불교를, 부산불교전문강당으로 전통 강맥 전수를, 청정화합시민연대에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행, 교육,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21세기 녹야원으로 정법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가운데) 등 주요인사들이 개관식에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는 삼화총림 여주 백화사에서 제9회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 및 십선계 수계식을 총무원장 혜인 스님을 비롯해 스님 70여명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 날 입종하여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등 14명이 스님으로 탄생했다.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구족계를 수지하는 스님에게 13가지 계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며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1부 법회와 2부 구족계 수계식 순으로 이뤄졌고, 이에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누구나 계행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이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무명을 밝힐 수 있는 참다운 나를 보며, 출가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살계수계도 봉행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증평 보광정사 대웅전 낙성법회

점안식·산사음악회 등 진행

증평 보광정사(주지 보광)는 11월 25일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원봉 스님을 비롯한 원로대덕스님 50여명과 사부대중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1부 점안식 2부 총무원장 운산 스님 법어, 3부 산사음악회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3년 전 불사를 시작해 스님의 기도정진과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 오늘 보광정사의 대웅전 낙성법회를 갖게 되어 찬탄한다"며 "복의 씨를 심은 동참대중들은 통장에 저금이 되어 업력으로 큰 복이 되돌아 올 것"이라고 법어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낙성법회 원력을 찬탄하는 법문을 하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3교 14:30